

불교인재개발원 中선적지 순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3월 10~13일 중국 항저우(杭州)로 선유적지 순례를 떠난다.

특히 이번 순례에는 고우 스님과 무비 스님이 동행, 각 선적지에 얽힌 대혜·고봉 스님 일화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법문을 펼쳐 공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순례지는 중국 오대 불산(佛山) 중 하나인 천목산과 대각국사 의천이 창건한 고리사, 고봉 스님이 단교화상을 만나 선 수행을 시작한 정자사, 대혜 스님이 조실로 주석했던 경산사, 대혜 스님의 견성처로 유명한 천령사 등이다. 접수 마감은 2월 12일 까지다. (02)735-2428 김강진 기자

조계종, 어린이법요집 발간

어린이 포교자료를 펴내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룡)이 세 번째 자료로 <어린이법요집>과 <어린이법회 의식곡 음반>을 선보였다.

어린이법회 의식 표준안을 제시한 <어린이법요집>은 '어린이 집회' '삼귀의' '어린이 오계' '새법우 환영가' 등의 의식곡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생일에 부를 수 있는 '생일축하곡'을 새로 작곡해 실었다. 법회 의식곡을 기존의 느리고 엄숙한 이미지를 탈피해 밝고 명랑한 어린이의 목소리로 녹음한 점과 전통악기와 현대악기를 함께 사용해 빠르고 신나는 느낌을 더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어린이들이 넘기기 쉽도록 스프링 제본법을 이용했으며, 종이 색깔이나 손이 베이지 않도록 코팅을 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해 실용성을 더했다. 질하는 법과 사찰 기본예절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02)2011-1893 여수령 기자

대불련 '겨울 수행학교'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김정현, 이하 대불련)가 2월 21~24일 3박 4일간 충주 석종사에서 '보람찬 겨울방학, 대학생 불자들의 수행나기'라는 주제로 '2008 겨울 수행학교'를 연다.

이번 수행학교는 21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깨어있는 삶'과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문과 포교 및 법회를 주제로 한 공동체 수행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24일에는 회향식과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해곡 스님을 지도법사로 하는 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02)732-0239 김강진 기자

“부처님 생애 영어로 말해요”

국제포교사회 '제1회 어린이 불교 영어 암송대회' 개최

“제가 들려 드릴 이야기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입니다. When Siddhartha was nineteen, King Suddhodana arranged the marriage of the prince to the princess Yasodhara. She was very wise as well as beautiful(깃타르타 태자가 19살이 되자 숲도나나 왕은 왕자를 아소다라 공주와 중매결혼 시켰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만큼 현명했습니다.)”

중종 결음으로 나온 어린이들이 꽤 유창한 발음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Biography of Buddha for Children>의 한 부분 또는 <본생담(Jataka)>의 이야기 중 하나를 영어로 외워 암송한다. 객석에서는 어른들의 흐트림과 놀라움이 교차된다.

이날 대회는 초등 저학년부(1~3학년) 5명과 고학년부(4~6학년) 5명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작정 귀엽게만 본다면 오산이다. 이날 치러진 본선 진출자 10명은 1월 5일 60여명이 참여한 예선을 뚫고 올라오기에 표현력도 수준급인데다 발음도 아주 좋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 전체 대상을 차지한 정영성(9·봉녕사 소속) 어린이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본생담> 이야기 중 육십 많은



아이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화제가 된 '제1회 어린이 불교 영어 암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영성(9·사진 오른쪽) 어린이와 깜찍한 소품으로 인기를 모은 김남주(8) 어린이의 모습.

여자가 황금 거위 털을 모두 뽑아버려 다시 가난해진다는 줄거리를 가진 'The Golden Goose(황금거위)'를 암송, 큰 박수를 받았다. 정 어린이는 “제가 암송한 영어 원고가 심사위원들의 가슴에 가 닿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혀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받았다.

국제포교사회 강영성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불자 어린이들에게 불교영어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대회를 정례화 시키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불교영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영어 암송대회 외에도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영어 골든벨 등도 열려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이날 대회 후 국제포교사회 신년법회 및 제12기 국제포교사 환영식을 진행했다. 김강진 기자



한마음선원 신도와 현대불교 직원 등 500여명이 1월 13일 태안 모항리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벌였다.

한마음선원·현대불교 직원들 태안 봉사활동

추위도 잊고 기름 제거 구슬땀

태안 해변에는 아직 기름 냄새가 가득하다. 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유출 사고 38일째인 1월 13일, 태안에 봉사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선원과 본사도 태안 모항리 일대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마음선원은 본원 및 지원에서 관광버스 차량 10대를 동원, 약 500여명의 신도가 이날 봉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없이 봉사활동을 묵묵히 수행해냈다.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이날 기름 제거 작업을 위해 직접 만든 천연 유효제를 사용, 바위와 자갈의 기름 때는 닦고 환경오염은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합심해 모은 먼 수건과 옷가지, 흡착포 등의 기름 제거 물품들을 직접 챙겨 오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펼친 모항리 일대는 전체적으로 바위와 자갈 등으로 이뤄져 피해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다. 자갈 하나를 들어 들춰보면 각종 어패류들이 고사(枯死)한 흔적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기름이 묻어 뒹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한 봉사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제안이다”며 “앞으로도 이 사건이 묻히지 않게끔 언론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통도사 앞 고층 건물 “안될 말”

스님들 “수행환경·주변경관 훼손” 반발

영축통림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산전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거리에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대형 콘도가 건설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동일리조트에서 시공 중인 콘도는 높이 70m의 고층 건물로, 규모 28710㎡(연건평 8700평)에 지상 16층 114실 규모다. 또 통도사 경내지 산란 앞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야쿠아 환타지아 내에 위치한 수행환경을 침해하고 주변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1월 13일부터 사회국장 진웅 스님은 ‘통도 환타지아 동일리조트 콘도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공사현장 200m 앞에서 천막 농성 및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진웅 스님은 “양산 통도사 앞에 신축 중인 동일리조트 콘도 건물은 16층의 대규모 위락 시설로 영축산을 가리는 등 경관을 훼손하고 지하 1000m의 용천수를 사용해 자연과 문화재에 심각한 훼손을 줄 뿐 아니라 수행환경을 파괴한다”며 공사 중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통도사는 앞으로 통도사 신도회 및 말사 등 대규모 집결 단식 투쟁에 동참 하고 서명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와 동일리조트는 1월 18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성미 기자

해인사, 국립공원 해제 요구

“환경 개념 아닌, 국가문화유산지역으로 관리돼야”

합천 해인사(주지 현웅)가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가야산해인사일원’은 1966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및명승’에 지정됐고, 72년 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 받고 있다.

해인사는 1월 15일 ‘해인사 및 가야산 일원’은 세계문화유산지역이자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환경적 개념으로 관리되면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게 됐다”고 해제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인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이용하는 가야산의 대다수

지역이 해인사 소유토지로, 국가가 손실보상이나 이용료 없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무상 점사용하며 일원에 개방하는 일은 위헌적이라고 사료된다”며 “가야산해인사일원”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이 지역이 환경부에서 생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아닌 문화부(문화재청)가 국가문화유산지역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은 가야산해인사 일원의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문화재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적 의미에서의 국립공원이

라는 인식만 갖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 장성 백양사에 이어 두 번째로, 해인사의 국립공원 해제 요청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인사의 국립공원 해제 요청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 온 문화재관료로 징수 반발 문제와도 맞닿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인사는 국립공원 해제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 등 문화재 전문기관에 전달한데 이어, 해인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조계종 교구본사와 중앙종무기관에도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여수령 기자

Advertisement for Mamirobot vacuum cleaner. Text: 진공청소기·물걸레청소기·구석청소기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Mamirobot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타일에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벽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장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 때 악귀와 잡귀를 미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벽' 사용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녀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수 있다. 가격 88,000원.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423 박정미

목·기관지

도라지 진액으로 ...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추운겨울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패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패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격 130,000원



내용량: 110g x 3병. 제조 (주)고려한방제약. 구입문의 1566-1940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고려한방)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삼웃!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삼웃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것은 알지만 옷값이 비싸서 구입할 수 없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삼웃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인) 성기숙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인문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희은 지금 - 옷 안더는 원뿔 최초 개발
• KBS 고희은 아침 - 침울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이의 좋은아침 - 옷 탈 걱정 없는 원뿔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침울 시름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더는 침울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침울 부직물 격파,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직물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침울은 왜이 되는 걸까요?
• 2006.10.31 KBS 무한재미극 - 침울

구입편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옷가네 침울 농림 무료전화: 080-838-3366